

#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예상, 임금은 1.5% 내외 상승할 듯

심 규 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him@cerik.re.kr

## 건설 투자 및 취업자 동향

**20** 11년 상반기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한 67.6조원이었고, 하반기에는 2.0% 감소한 8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조한 건설투자 수준을 반영하듯이 건설업 취업자 수는 6월을 제외하고는 180만명을 하회하며, 3월 이래 지속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월별 건설업 취업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저 수준이었던 2009년 수준을 오르내리는 정도로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저 7.0%와 최고 7.3% 사이를 오가고 있어 2011년 연간 평균 비중은

전년의 7.4%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직종별 임금 동향

대한건설협회의 임금실태 조사 자료(하루 8시간 환산 임금)에 의하면 건설 투자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건설 근로자의 주요 직종별 임금은 미미하나마 상승세를 이어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는 주로 한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까지 감안한 현장의 체감 임금 수준에 비해 높을 수 있다. 2011년 5월 시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숙련 인력인 보통 인부의 임금은 7만 4,00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했고, 1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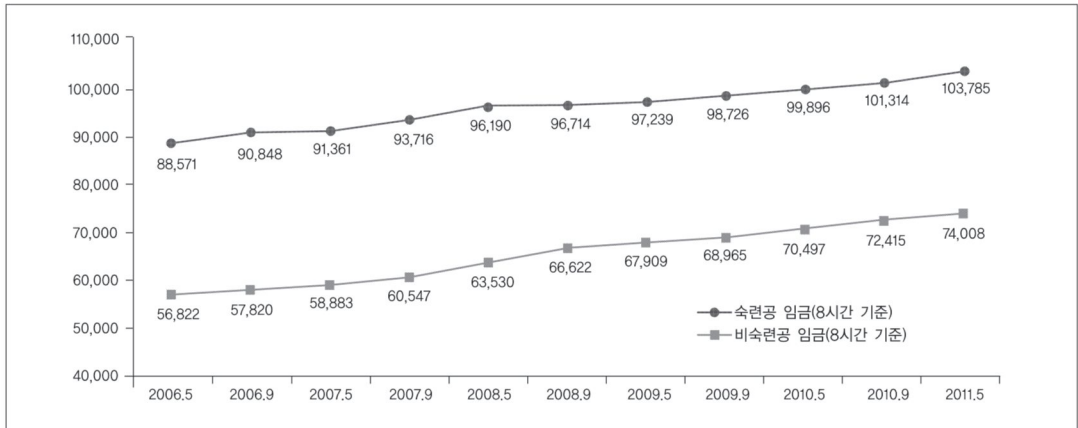
건설업 취업자 수 및 건설 투자와 추이

(단위 : 천명, %, 조원)

항목	시기	2009	2010	2011								
				1	2	3	4	5	6	7	8	9
취업자	전(순) 산업	23,506	23,829	23,196	23,336	23,846	24,303	24,661	24,752	24,636	24,495	24,318
	건설업	1,720	1,753	1,632	1,622	1,670	1,735	1,787	1,802	1,754	1,789	1,723
	건설업 비중	7.3	7.4	7.0	7.0	7.0	7.1	7.2	7.3	7.1	7.3	8.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5.1	1.9	0.9	1.7	-2.9	-3.2	-1.5	-2.3	-3.1	-0.1	-2.0
건설 투자 (2005년 불변가격)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59.2	157.0	67.6 (상반기)						81.1 (하반기)		
		3.6	-1.4	-9.0 (상반기)						-2.0 (하반기)		

주 : 2011년 하반기 건설 투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각 월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건설 기능인력의 숙련도별 임금 추이(하루 8시간 기준)



주 : 1) 숙련공 임금은 형틀목공, 건축목공, 비계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배관공, 도장공, 철근공 등 11개 직종의 평균 임금임.  
 2) 비숙련공 임금은 보통 인부의 임금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각 연도.

주요 직종이 포함된 숙련 인력의 평균 임금은 10만 3,785원으로 3.9% 상승했다.

주요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1년 5월 현재 일일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비계공(12만 3,972원)이고 그 뒤를 철근공(11만 1,058원), 타일공(11만 585원), 건축목공(10만 6,641원), 형틀목공(10만 5,805원), 조적

공(10만 4,754원) 등이 있고 있다. 1년 간의 직종별 일일 임금 증감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건축목공의 경우 8.5%가 올라 8,387원 상승했고, 비계공의 경우 5.9%가 올라 6,882원이 상승했으며, 타일공의 경우 5.8%가 올라 6,111원 상승했다. 반면, 방수공의 경우 5.1%가 감소해 4,196원이 하락했다.

건설 기능인력의 주요 직종별 임금 동향(하루 8시간 기준)

구분	직종별 8시간 기준 임금 추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07. 9	2008. 5	2008. 9	2009. 5	2009. 9	2010. 5	2010. 9	2011. 5	2010. 9	2011. 5
보통 인부	60,547	63,530	66,622	67,909	68,965	70,497	72,415	74,008	5.0	5.0
숙련공 평균	93,716	96,190	96,714	97,239	98,726	99,896	101,314	103,785	2.6	3.9
형틀목공	96,690	97,678	100,469	101,873	100,730	101,932	104,308	105,805	3.6	3.8
건축목공	102,164	102,173	101,831	99,763	96,310	98,254	99,722	106,641	3.5	8.5
비계공	107,592	114,640	116,264	116,944	118,515	117,090	120,681	123,972	1.8	5.9
조적공	86,508	91,518	89,437	90,619	95,916	100,263	102,200	104,754	6.6	4.5
미장공	89,567	93,122	93,579	94,140	95,659	98,280	100,562	103,210	5.1	5.0
방수공	76,130	76,896	75,703	76,579	80,553	81,638	82,178	77,442	2.0	-5.1
타일공	98,698	98,480	95,954	96,865	101,048	104,474	105,611	110,585	4.5	5.8
콘크리트공	97,531	99,880	98,735	100,639	103,780	100,947	103,765	102,951	0.0	2.0
배관공	83,392	86,717	87,372	86,513	89,975	91,564	92,988	94,293	3.3	3.0
도장공	91,764	90,721	93,734	93,715	92,700	95,987	93,119	100,929	0.5	5.1
철근공	100,835	106,266	110,775	111,980	110,803	108,427	109,325	111,058	-1.3	2.4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 2012년 건설 기능인력 수요·공급 및 임금(8시간 기준) 전망

(단위 : 조원, %, 천명, 원)

구분	2010년			2011년(e)			2012년(e)	
건설 투자		74.2	82.7	157.0	67.6	81.1	148.6	149.6
건설 기능인력 (내국인)	수요	1,243	1,287	1,265	1,221	1,243	1,232	1,254
	공급	1,165	1,353	1,259	1,161	1,348	1,255	1,236
일일 임금 (8시간 기준)	숙련 인력	99,896	101,314	100,605	103,785	105,154	104,470	108,126
	비숙련 인력	70,497	72,415	71,456	74,008	75,226	74,617	77,378
증감률(% , 전년 동기 대비)								
건설 투자		0.4	-3.0	-1.4	-9.0	-2.0	-5.3	0.7
건설 기능인력 (내국인)	수요	-0.9	-11.2	-6.4	-1.8	-3.4	-2.6	2.7
	공급	-2.1	-1.6	-1.9	-0.4	-0.4	-0.3	-1.5
일일 임금 (8시간 기준)	숙련 인력	2.7	1.7	2.2	3.9	3.8	3.8	3.5
	비숙련 인력	3.8	5.0	4.4	5.0	3.9	4.4	3.7

주 : 1) 건설 투자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임.

2) 건설 기능인력 수급을 내국인으로 국한한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 도입 규모 및 단속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 변수이기 때문임.

3) 일일 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숙련 인력 임금은 11개 주요 직종(형틀목공·건축목공·비계공·조적공·미장공·방수공·타일공·콘크리트공·배관공·도장공·철근공)의 평균 임금이며, 비숙련 인력 임금은 보통 인부의 임금을 의미함.

4)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수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능인력 수요 증가, 공급은 감소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2년 국내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0.7% 증가에 그치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생산물의 파생 수요인 건설 기능인력의 수요는 건설 투자에서 차지하는 건축 투자의 비중이 약간 높아지면서 2011년에 비해 약 2.7% 증가한 125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속되는 고령화 추세와 젊은 층의 진입 기피 심화로 공급은 1.5% 줄어 123만 6,000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임금은 전년에 비해 약간 상승 예상

2012년에 기능인력 수요가 약간 증가하는 반면, 국내 기능인력 공급은 줄어 임금 수준(하루 8시간 기준)은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숙련 인력의 평균 일일 임금은 전년 대비 3.5% 증가해 10만

8,126원이 되고, 비숙련 인력의 경우 전년 대비 4.4% 증가해 7만 7,378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내국인 고령화에 따라 공급이 줄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의 임금 상승률이 인력 수요의 증가율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외국 인력의 공급이 정부의 의도대로 통제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는 '건설업취업등록제'를 통해 건설업종 차원의 허용 인원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것은 방문 취업 동포(H-2)를 대상으로 건설업 취업 허용 인원 상한선을 설정하고, 건설업 취업 등록 및 취업 교육을 거친 동포에게만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상술한 전망은 동포를 포함한 외국 인력 규모가 약 6만명 이내로 유지될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불법 외국 인력 단속 정도에 따라 주로 비숙련 인력에 대한 구인과 임금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ERIK